

“다수 편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정당합니까”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표창원 박사 강연

‘송전탑’ 밀양주민 희생... 세월호 유가족엔 침묵 강요해

정의로운 나라 위해 ‘용기있는 소수·정직한 다수’ 절실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1일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가 마련한 ‘2014 치유의 인문학’ 일곱 번째 연사로 광주시민을 만난 표창원 박사(48). 멋스러운 검정 스니커즈와 재킷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용기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시민과 학생 등 수많은 관객이 강연장 입구까지 가득 차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국내 최초 범죄심리분석 수사관(프로파일러)이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인 표 박사. 그는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했다. 현재는 자유인 신봉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강연을 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표 박사는 세월호 참사 상흔이 여전한 대한민국을 ‘프랜시스 스पा이트’호에 비유하며 ‘정의와 행복’에 대해 거듭 질문을 던졌다.

프랜시스 스पा이트호는 지난 1835년 통나무를 가득 싣고 출항했다가 풍랑을 겪고 좌초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선원 18명은 부족한 식량으로 13일간 연명하다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다. 이때 선장은 구조를 기다리다 모두 굶어 죽기보다 소수를 희생해 다수가 살아남자고 제안한다.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람을 식량으로 삼아 다수를 살리자는 의견에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선원들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린 선원 세 명이 희생된 끝에 15명은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들은 범정에 회부됐다.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예 수 없었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선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

았다. 그런데 얼마 후 무죄판결을 받았던 선원이 양심고백을 했다. 제비뽑기가 선원과 기관장에 의해 조작됐고 어린 선원 세 명이 부당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표 박사는 프랜시스 스पा이트호 사건이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잔인한 이야기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전탑은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애꿎은 밀양 주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대중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에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며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마비시킨다고 침묵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인 프랜시스 스पा이트호 선원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다수 편의를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표 박사는 세월호 같은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정답은 없었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정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수 국민이 불행한 현실은 개인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정의가 실현됐을 때 만족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직과 공정함’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웃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화는 면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을 얻으려 경쟁에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그 끝에 원하는 것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은 게으른 개인 탓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용기있는 소수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80년 광주시민처럼 용기있는 소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희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용기있는 소수에게 공감하고 응원하는 정직한 다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광주트라우마센터 2014 치유의 인문학 강연을 위해 광주를 찾은 표창원 박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푸는 열쇠말로 ‘용기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를 제시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직파재배 벼 콤바인 수확 시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24일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들녘에서 직파재배한 벼를 콤바인을 이용해 직접 수확하고 있다. 벼 직파재배는 농경지에 직접 벼 씨앗을 뿌리는 농법으로, 보성 등 전국 9개 지역 74.1ha에 시범 도입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 우산중 이준석군

‘2014 청소년 대상’ 선정

광주시 2014년 청소년 大賞에 우산중학교 이준석(3년·사진)군이 선정됐다. 시는 전체 대상 1명과 효행·선행·면학·장애·예체능·봉사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총 7명을 확정해 최근 발표했다.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는 ‘선행’ 부문의 이준석군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평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와 지역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학생시절 경찰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선행과 봉사를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문별 수상자는 ▲효행부문 전희상(광주전자공고 2) ▲선행부문 이의준(국제고 2) ▲면학부문 김하림(대성여고 2) ▲장애부문 진혜림(광주세광고고 3) ▲예·체능부문 장의정(광주예고 2) ▲봉사부문 정상훈(동일전자정보고 2)군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1일 ‘광주청소년상 시상식페스티벌’ 본행사에서 광주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

한국판소리보존회 ‘동리대상’ 수상

판소리 세계유산 등재 등 기여

(사)한국판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사진)가 제24회 동리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사)동리문화사업회는 지난 23일 제24회 동리대상(상금 1500만원)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한국판소리보존회를 올해 수상자로 결정했다.

동리대상은 고장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가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업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법인 포함)을 선정한다.

1973년 설립된 (사)한국판소리보존회는 명창 박복수 선생을 시작으로 김소희 선생 등이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무형문화



재 판소리 예능보유자 송순섭 명창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송 명창은 지난 2009년 동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는 판소리 유파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각 유파의(동편제, 서편제, 김세종제, 종고제) 정리 계보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판소리 유파대전(44회 개최), 전국판소리경연대회(19회 개최) 등을 열고 있다. 특히 2003년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상식은 11월 6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극약당에서 개최된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 북구청 나흥대 주무관 ‘민원봉사대상’

광주시 북구청(정장 송광운) 위생과 나흥대(51) 주무관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제18회 민원봉사대상을 최근 수상했다. 나 주무관은 공직생활 30여 년간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가 됐다.

특히 지난 1983년 4월부터 30년 동안 한센인 정착촌인 성진원을 100여 차례 방문



해 마을환경 정비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암동 미디어센터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는 시상금 500만 원을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이종희기자 glee@

현대차 광주본부, 자매결연 농촌마을 일손 도와



현대자동차 광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25일 1사1촌 결연을 맺은 장성군 원금동 마을을 찾아 공동농장에서 함께 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차 광주지역본부 제공>

기아차 광주 1공장, 지역 어르신과 문화 나들이



기아자동차 광주 1공장 임직원들은 지난 24일 광주지역 독거노인 100명을 초청, 나주 영산강 송촌보에서 영산강문화관 관람과 민속놀이 등 ‘어르신 행복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갑제(무등일보 주필·광복회 광주 전남지부장)·김영씨 아들 대문(우리은행)군 김중현·정숙희씨 딸 선화(우리은행)양 = 11월 1일(토) 낮 12시 30분 리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동창회

▲광주승고총동문회(회장 최경채) 한마음체육대회 = 11월 1일(토) 오전 9시 도교운동장

알림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 =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 = 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 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 = 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 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

화 운영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학대를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과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 미혼부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임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임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모집

▲심재계가 장기요양기관 회원 =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

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조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 = 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 = 성인미술 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 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과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 = 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 = (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산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 = 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조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부음

▲김오례씨 별세 이흥재·행순·평자·미

라씨 모친상 = 발인 27일(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박옥윤(조선대 초대 명예교수 회장)씨 별세 환영(前광주은행 지점장)·진영(박진영 치과)·영희·신정·현정·윤정씨 부친상 = 발인 27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최인기씨 별세 강일(BBS광주불교방송 기술부)씨 부친상 = 발인 28일(화) 광주 그린장례식장 4층 VIP실 062-250-4455.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유성철 남(72세) 子/子婦: 유중수/나경순 女/婿: 유정민/최선영, 유정화/민가현 •발 인: 10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102호 故민현중 남(92세) 子/子婦: 양정근/정성량, 양호근/주미혜 女: 양성순 孫: 양정현, 양정호, 김용복 •발 인: 10월 28일 •장 지: 영락공원
401호 故조정민 남(69세) 子/子婦: 최종식/이미연, 최중현/김정란 女/婿: 최종희/김성환 夫君: 최환수 •발 인: 10월 27일 •장 지: 남평을선영	402호 故홍남영 남(88세) 子/子婦: 홍성수/조순경, 홍성길 女/婿: 홍해영/김광석, 홍해정/이만환 •발 인: 10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